



리원철 프로필 :

언론인, 출판인,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졸업, 선후하여 연변일보사, 길림신문사, 연변인민출판사 기자, 편집으로 근무, 직함 편집. 2001년 3월 -12월 한국 《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 펠로우, 2003년 한국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2011년 길림성인민정부 '장백산문예상' 심사위원.

'소공동이 두드러지 않아도 흙세'라고 시골 출신 신세에 한껏 꺼져있던 나를 하늘이 봐주었는지 어렵사리 대학문에 들어섰고 이어 저마다 선망하는 기자 직업에 행운스레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모든 게 신났고 야심이던 힘솟고 부러운 게 뭘지 모르는 하루 하루였다. 그 광명과 상상은 내가 《연변일보》 소식부에서 농촌부로 옮겨간 이듬해인 1984년 이듬해 봄까지 내쳐지지 않고 이어졌다.

그 무렵, 직장에서는 의무현황 동원이 있었다. 나는 직장의 수혈지원자 10 여명과 함께 당시 신화가 1호 연변일보사 맞은편 하남다리 바로 건너에 있던 주혈액관리소로 찾아갔다. 팔을 걷고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 내가 소속해있던 농촌부의 박경섭 부주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장기도 가지 않은 총각인데 수혈하면 어쩌나. 내가 대신할 테니 얼른 빠지게." 하고는 나를 무작정 밀어냈다. 박경섭 부주임이 하도 힘주어 밀어내기에 결국 빠지고 말았다.

박경섭 부주임이 신참의 만일을 걱정하여 것처럼 현신적으로 나왔을 게 분명하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난다.

당시 박경섭 부주임은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비단결 같이 부드럽고 지극히 의로운 중견 선배기자였다. 흥춘식주임과 손발이 착착 맞았는데 기사를

[ 그때 그 이야기 ]

#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

◎ 리원철

놓고 서로 시각 차이가 있더라도 펜스레 떠드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변론하고 조용히 끝내버리었다. 그러고도 신참한테 은근슬쩍 주임을 험담하는 걸 듣지 못했고 대신 주임이 누구보다 정책에 해박하니 가까이에 계시는 때 많이 배워뉘야 한다고 자주 당부하곤 했다. 정, 부 두 주임의 손맛춤에서 나는 찰떡궁합의 의미가 뭘지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박경섭 부주임은 그때까지는 30대 후반 장년이였으니 돌이켜 볼수록 연령보다 함참이나 일찍 거치른 세파를 이겨낸 어른이었다. 흥춘식, 박경섭 두 주임은 직장생활에서 한날 한대기인 나한테 공직과 일상의 끈은 좌표를 몸으로 맞춰준 계몽 스승이었다.

물론 나한테 와닿은 부주임 박경섭 선배의 인간적 의리와 배려의 숨결은 결코 수혈을 대신해준 에피소드 하나만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무렵 취재차 흥춘에 내려가 있는데 삼가지진의 한 보통 농민이 초지를 도맡고 대형 방목장을 꾸린다는 1면 톱기사 취재감이 있으니 그걸 취재해서 '물고' 오라는 주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에게 톱기사는 말 그대로 직업중 첫 손 꼽히는 절제절명의 '중대사'였고 부인이 서로 다른 편집부마다 모두 톱기사 발견과 발굴에 사활을 걸다 싶어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톱기사를 한판 쓰게 되면 기자적 능력을 성급 인정받게 되는 건 물론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이층삼중으로 중시받는 코너였다.

신참이 술담병물담병하다가 괜히 톱기사에 흥분한 나머지 일을 그르칠까 걱정스러웠는지 박경섭 부주임은 멀리 흥춘까지 우정 찾아왔다. 박경섭 부주임은 우리가 목은 흥춘호텔에서 이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까근히 토의해나갔다. 톱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여기에 뿌리는 심혈을 절대 가바운 허드레일로 받아들이 수 없는, 긴박한 분위기를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만바로 문제를 잡으면 오총편집이 톱기사로 신겠다고 약속한 기사인 만큼 한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되겠소. 특히 동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취재하고 집필하는가 직접 고풍할 료량으로 우정 단서만 알려준 거니 이번 기회에 각별히 기자적 감각을 보여줘야 하오..."

오총편집이란 당시 신문사 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조선족 언론의 살아있는 사전같이 받들리던 오태호 총편집을 이른다. 나중에 《길림신문》사 초대사장, 총편집까지 겸임한 덕망 있는 원로 언론인이다.

박경섭 부주임은 주선 취재에 필수적이라 할 질문 테마를 까근히 체크하고도 시름이 놓이지 않는지 한참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동무한테 첫 톱기사로 뭘 만큼 오총편집이 꼭 단독 면담을 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으니 알아올 만큼 다 알아와야 하겠소. 상세히, 까근히 장악할수록 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요." 불가예측적인 다양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챙기라는 신신당부였다.



80년대 초반 《연변일보》 농촌부 흥춘식주임과 박경섭 부주임 (왼쪽)

흥춘에서 써가지고 온 기사를 되근 립박에 교부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 바람으로 흥춘식주임이 오총편집에서 부르니 찾아가라고 손짓하였다. 기다리던 순간임에도 몸이 마구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오총편집이 왔을 때 불리워 가서 치하를 바라는 건 한날 사치라는 것은 온 신문사 울안에서 다 알고 있다. 대신 까다롭고 혹독한 질문이 이어지고 어정쩡하게 답북하면 낮뜨거워나는 추상같은 꾸중이 한타스 차레전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게 좋았다. 그래도 총편집이 불러준다는 세부가 모종의 긍정이 깔려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다름없기에 오총편집의 부름을 받지 못한 편집기자들은 은근히 머쓱해하고 있었다. 그때도 나의 선배님들 중에서 오총편집의 일

대일 '점고'에 외면되어 서운해하는 편집기자들이 수도룩하였다.

오총편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내가 기사를 쓴 원고지를 손에 든 채 나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기사외의 부차적 화제 예닐곱개를 '결가지 치기' 식으로 연거퍼 물었다. 박경섭 부주임이 미리 귀땀해주어 사전에 파악해두었기에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다. 대체로 오총편집은 핵심 테마를 주변과의 연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가 하는 편집기자의 잠재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관은 넘기였겠지 하고 일찍 패제를 부르던면 서부른 착각이다. 여섯째 들어온 오총편집은 그렇게 순순히 나를 놓아줄 만치 료룩치

않았다. 과연 오총편집은 기사를 쓴 원고지를 흔들면서 나를 닦아세웠다. "동무는 원고지에 몇글자 오려놓으면 만사대길인 줄 아오? 기자라면 사업 태도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똑 짝어 말하자면 글자부터 단정해야 한 단 말이요. 동무가 썼다는 이 글자를 보오. 이게 대학생이 쓴 글자요? 이 엉망은 누가 알아본단 말이요. 이 따위를 어지럽게 갈기겠으면 쓰지 말란 말이요! 기사를 아예 하지 말든지. 들었소!?"

결국 속으로는 "과연 명불허전 무서운 독종이구나..." 하고 새김질하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돌아오자 박경섭 부주임이 시무룩이 웃으며 다가왔다. "고베 무사히 넘겼는지?"

그때 우리 수확전공을 포함하여 네 개 전공의 신입생들이 연변대학 중평분교에서 첫 학기를 보냈다. 중평 마을은 왕청현 중평공사 소재지였는데 그 시기에는 영업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공사 초대소에 식당이 있었지만 초대소에 류숙해야만 그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주말에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술을 마시는 몇몇 조선족 학생들은 혹시 일요일이면 공소사에 가서 술안주로 과거 같은 걸 사서 매대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때도 내게는 한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기숙사에는 연길 어느 중학교에서 교원사업을 하다가 온 대학생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있는지라 주말마다 집으로 갔다. 그는 갈 때마다 식사카드를 나한테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카드 두개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점심 세끼를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말 울다가 웃을 일이 생겼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어서 내가 두 사람 몫의 아침밥을 타다 한창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떠주는 아줌

"네, 육은 언어터지도록 뿌렇게 달고 왔지만 기본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이틀 뒤인 1984년 4월 24일 《연변일보》 화요일판에 내가 취재한 기사가 <소사양 전문호 한성병 형제 방목지 2,000헥타르 도맡고 상품소대량 생산에>라는 표제로 1면 톱기사로 실렸다. 버젓하게 내 이름으로 나갔다 해도 실은 박경섭 부주임의 지혜를 믿고 잉태된 작품이었다.

다음해 4월에 나는 새로 창간된 길림신문사에 옮겨오면서 아쉬운 대로 박경섭 부주임과 갈라지게 되었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 길에서 흔치 않게 오랜만에 만나도 수인사나 나누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제때에는 앞만 바라보고 달리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40년이 넘는 춘추동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퇴직후 나는 그동안 경황없이 살면서 박경섭 부주임과의 만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에 부끄러움을 안은 채 맥을 찾아갔다. 어느덧 80 고개를 넘긴 박주임의 머리는 온통 눈부시도록 희끗희끗해졌어도 워낙 미남형으로 굳어진 준수한 얼굴에는 여전히 훈훈한 젊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방정맞게도 그날따라 협일이 불시로 무섭게 올라가는 바람에 오랜만에 만난 박주임과 아파트 현관에서 몇타지 못 나는 채 부러부러 병원에서 향하게 되어갔다. 그 일이 너무 미안해서 지난해 국경절 무렵에 다시 박경섭 부주임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나의 사정으로 박경섭 부주임 부부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야기는 오래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나는 또 '빛'을 지게 되었다. 박주임은 내가 들고 간 소정의 선물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으

면서 내가 갖고 간 용돈을 건네려는 순간 어느새 먼저 탁자 위에 짐작 준비해두었던 500원을 기어이 나의 귀춤에 떨어주었다. 뿌리쳐도 도무지 안되었다. 갖고 간 돈은 하도나 집요하게 뿌리치기에 견내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사은으로 드리는 돈이라도 상대가 첩통같이 튼 안 내주면 도무지 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 박경섭 부주임한테서 새삼스레 읽을 수 있었다. 40여년이 흘러간 지금도 박경섭 부주임이 이미 퇴직까지 한 당년의 부하를 그냥 썩 어린 후배로 아끼고 있었다.

오늘도 나와 박경섭 부주임의 40여년 우정을 연길과 룡정 사이에서 흔들림없이 윤택으로 예이제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고받는 문자는 장황하지 않고 단 몇타지만이라도 서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받는 날마다의 아침은 그토록 싱그럽고 풍요롭다. 무서운 것이 뭐나 타치는 대로 부딪쳐보고 싶었던 젊은 투지에 신심과 용기를 뿌려주고 힘차게 불을 지퍼준 어르신들이 그리없이 고맙고 숙연해진다.

이리저리 훑날리는 것털눈을 바라보다가도, 키보드를 한참이나 여념없이 두드려다가도... 훌쩍 보이지 않는 어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오늘을 상기하면 금시 온몸이 따스해난다.

◎ 리상호



리상호 프로필 :

1955년 도문시 석현진에서 출생, 1973년 2월 하향지식청년으로 농촌에 하향, 1982년 1월 연변대학 수확학부 졸업, 2015년 3월 퇴직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도 첫 학기는 자못 중요하다. 나로 말하면 더욱 그러했다. 나는 대학교 첫 학기에 분투와 노력으로 하향 지식청년으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완수했으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아도 감개무량하다.

1978년 3월 2일, 나는 20여일전에 받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연변대학(수확학부 77년급)에 등록하고 내 대학 생애의 첫 학기를 시작하

[ 그때 그 이야기 ]

# 잊지 못할 연변대학 첫 학기

였다. 비록 48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지만 대학교 첫 학기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개학식을 마치고 나자 대학교 첫 학기 생활이 곧 시작되었고 급방 학교문에 들어설 때의 신비감과 흥분된 심정도 인침 사라져버렸다.

농촌에서 일하던 내가 날마다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더니 전혀 습관이 되지 않았다. 바늘방석에 앉은 듯 힘들었다. 농촌에서 로동을 위주로 하며 비교적 자유로웠던 생활의 관성이 라고 봐야 하겠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심지어 내가 공사나 현에 무슨 회의를 왔나 하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앉을 주시해보면 선생님께서 한창 강의를 하고 계셨다.

농촌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면 담배 생각이 나서 책상 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맡아놓았다가 휴식 종소리가 울리자 바쁘게 인침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간 지나니 점차 수업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도 점차 적응되기 시작했다. '수학

분석'과를 강의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에 영향이 있다고 귀땀해주어 인침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제일 큰 곤란은 그래도 공부였다.

비록 대학입시가 회복된 후 대학에 왔지만 농촌에서 중소학교를 다녔으니 실제 문화 정도는 고중 정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수학교육이 말하듯 겨우 고중 2학년 정도라고 해야 하겠다. 게다가 중소학교 모두 조선족학교를 다녔으니 한어로 강의하는 대학교 수학의 일부 내용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리해도 안되었다.

그러나 시내에서 자랐어도 그렇게 간고한 농촌생활에 적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농촌 탄광일도 했을라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못할가 하고 용감히 도전해 나갔다.

수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고중에서 못 배운 수학지식을 자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배운 내용을 먼저 예습하면서 리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수업시간에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수업시간이 끝나면 서둘러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기타 동학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날 배운 지

식을 완전히 리해한 후에야 숙제를 하였고 또 참고서적이나 문제집에서도 그날 배운 지식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찾아 풀이를 많이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했다. 극한과 미적분 부분에서는 그날그날의 숙제를 완수하는 외에 참고서적, 문제집의 연습문제를 무려 3백여개나 더 풀어보았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노력하고 분투했더니 기말 시험에서 여러 과목 모두 다행히 합격되었다.

두번째 학기부터는 완전히 학교 학습생활 절주에 적응되어 기말시험 성적이 란호나 우수도 나왔다.

두번째 곤란은 생각 밖으로 배고픈 고생을 줬다는 것이었다.

그 시절 대학생들은 나라의 혜택으로 학비와 류숙비도 내지 않았고 식사도 나라에서 내주는 장학금(助學金)으로 해결하였다. 세계 식사는 모두 학교 식당에서 하였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식사카드를 사용했다. 식사카드가 바로 장학금이였다. 식사카드에는 매달 날짜와 그날에 해당되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정량형 모양으로 된 작은 칸이 있었는데 끼니마다 체크를 하고 밥을 타 먹었다. 량식은 내 기억에는 31근 표준으로 더 먹을 수 없었다.

희포도 풀지 못한 아쉬움에 나는 직장생활에서 나의 갑질이가 되어 사랑을 뿌려준 선배님들과 세간의 어른들을 기리어 몇해전에 썼던 글 <어른>을 보내주었다. 물론 글에는 박경섭 부주임과의 연분을 다른 부분도 있었다.

항상 빛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어 올 초겨울에 나는 박주임 사모님 앞으로 겨울철 양털 스카프를 주문하여 보냈다. 박주임은 사모님이 택배로 받은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찍은 사진과 함께 위로로 말하듯 짧다고 하기 어려운 긴 글을 보내왔다. <어른>을 읽은 소감도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 부쳐온 목도리를 받았소. 마누라는 남녘 한골에서 명품을 사보내주시니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무척 송구해하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 남에게 받은 값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만..."

그때 보내준 <어른>이라는 글도 고맙게 읽어보았소. 거의 다 읽어버렸는데 글에서 다시 되풀이해주어 감회가 새롭구만.

글에서 나와 관련한 일화도 곁들여 주어 감사하오만 나에게에는 과분한 필목이어서 부끄러웠소.

농촌부에서 부주임이라는 감투를 땀해 달고 다녔어도 기실 부주임 구실은 제대로 해본 걸지 않소. 나가면 취재하고 들어오면 편집하고... 다른 편집기사와 거의 같이 뛰어다니는 걸소. 그게 오히려 나에게에는 편하고 좋았소. 그래서 나는 부주임이라는 부름이 민망하고 싫었소..."

당뇨의 기자로 있으면서 젊은 시절부터 민족신문사업에 묵묵히 혼신을 불살라온 한 언론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샘물 같은 고백이었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양애에 고개가 숙여졌다. 저도 모르게 이쁨 자랑에 급급해할세라 봄기별만 알리는데 골몰하면서 눈서리 속에서도 타고난 운치를 잃지 않는 매화가 떠오른다.

오늘도 나와 박경섭 부주임의 40여년 우정을 연길과 룡정 사이에서 흔들림없이 윤택으로 예이제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고받는 문자는 장황하지 않고 단 몇타지만이라도 서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받는 날마다의 아침은 그토록 싱그럽고 풍요롭다. 무서운 것이 뭐나 타치는 대로 부딪쳐보고 싶었던 젊은 투지에 신심과 용기를 뿌려주고 힘차게 불을 지퍼준 어르신들이 그리없이 고맙고 숙연해진다.

이리저리 훑날리는 것털눈을 바라보다가도, 키보드를 한참이나 여념없이 두드려다가도... 훌쩍 보이지 않는 어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오늘을 상기하면 금시 온몸이 따스해난다.

마가 종종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개 대학생으로서 카드 하나로 어떻게 밥을 두 몫이나 타서 먹느냐고 꾸짖었다.

다른 밤상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망신스러웠던 나는 인침 카드 두개를 꺼내 그에게 보이면서 우리 기숙사의 형님이 집에 가면서 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맡겼는데 카드 두개로 두몫을 받으면 안되는가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정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란해하라고 사과했다.

문제는 해명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많이 먹는 '밥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농촌 탄광에서 몇달간 일하던 사립이고 농촌에서 5년이나 일하다 왔으니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 '밥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른 곤란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중평분교에서 연변대학 학생생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농촌의 체력로동자에서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끝내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두번째 학기부터는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 본부에서 나머지 대학생활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1982년 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